

윌리엄 마틴의 기독교 변증서 『천도소원』 연구

송의원 백석대 기독교철학 박사과정

I. 들어가는 말

중국에 들어온 기독교는 변방문화에서 시작되었다. 명말청초 중국에 들어온 선교사들은 자신들의 문화를 주장할 수 없었으며, 주저 없이 중국문화의 옷을 갈아입을 수 밖에 없었다. 중국에서 기독교와 중국문화 사이에 접촉한 역사를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당(唐)대와 원(元)대 유행했던 경교(景敎)¹⁾와 야리가온교(也里可溫敎)²⁾를 통해 알 수 있다. 그러나 당·원대 경교와 야리가온교는 불교, 도교의 형식을 빌려 명맥을 유지하다가 소멸하고 말았다.

명말청초 마테오 리치(Matteo Ricci, 중국명: 利瑪竇 :1552~1610)는 광둥(光東) 조경(肇慶)에 도착하여 자신을 승(僧)이라 부르고 스스로 승복(僧服)을 입고 생활하였다.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명나라 안에서 불교의 영향력을 보면서 서양 선비로 자신을 소개하면서 사대부의 유가복장으로 갈아입기도 하였다.³⁾ 이러한 과정 속에서 리치와 교류한 사대부들 중 가톨릭에 개종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였다.⁴⁾

마테오 리치는 사대부들과 대화하면서 유교와 기독교간의 접촉점을 찾아가기 시작하면서 그 결과물로 『천주실의(天主實義)』를 출판하였다. 리치의 『천주실의』는 동서양의 사상적 접촉점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근대 동아시아 문화를 형성하는데 있어 아주 중요한 책으로 손꼽힌다.

이후 청말 개신교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좁았던 선교의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였다.⁵⁾ 특히 텐진조약에서 '개신교 선교사들의 포교활동의 자유'조항을 넣었던 인물이

1) 경교는 네스토리우스교로서 에페소스공의회에서 이단으로 선고된 콘스탄티노플의 주교 네스토리우스가 주장한 그리스도교의 한 분파이다. 왕치심, 『중국 종교사상사 대강』 정진완 옮김, (천안: 아우내, 2010), 254.

2) 야리가온교는 원나라에 번성한 기독교의 명칭이다. 야리가온이란 말은 원래 몽고어로 "인간에게 복을 나누어 준다", "인연이 있는 사람" 혹은 "복음을 받은 사람"이란 뜻이다. 왕치심, 『중국 종교사상사 대강』 정진완 옮김, (천안: 아우내, 2010), 256.

3) 李之藻, 『天學初函』, 「編理」, (上海: 上海交通大學出版社, 2013), 27. 利氏之初入五羊也, 易復數年 混跡, 後遇懼太素氏, 乃辨非僧, 然後蓄髮稱儒 觀光上國.

4) 마테오 리치와 교류했던 문인들 중 대표적 인물은 서광계(徐光啓 1562-1633)이다. 1603년에는 그에게 세례를 받아 로마 가톨릭으로 개종하였다. 그는 마테오 리치에게 천문학과 수학을 배웠으며, 한림원 서길사로 있을 때 선교사들을 도와 『천주실의』와 유럽의 역사(易書)등을 번역하였다. 또한 서양학문을 연구하여, 유클리드의 기하학을 마테오 리치와 함께 번역하여 《기하학 원본》 전 6권을 간행하였다.

5) 중국에서 본격적으로 개신교 선교가 허용된 것은 제 2차 아편전쟁 이후 텐진조약(1858년)이다. 이 텐진조약에서는 아주

윌리엄 마틴(W. A. P. Martin, 중국명: 丁韪良, 1827-1916)이다.⁶⁾

정위량(丁韪良)⁷⁾은 미국 장로교 목사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는 1843년 인디애나 대학에서 그리스어, 수사학, 전기학, 광학 등을 배웠으며, 1846년에는 뉴알바니 신학교에 입학하여 칼빈주의 신학을 접하였다.

정위량(丁韪良)은 1849년 목사 안수를 받은 직후 중국선교사로 떠났다. 1850년 정위량 일행은 홍콩에 도착하여 해안을 따라 영파(寧波)에서 언어 훈련과 ‘영파방언’으로 저술한 책들을 출판하였다. 그의 중국 선교는 66년간 지속되었는데, 정위량이 쓴 많은 저서들 중 베스트셀러는 『천도소원(天道溯原)』이다. 『천도소원』은 기독교를 변증하는 책으로 ‘하늘의 도를 거슬러 올라가 근원을 찾는다’는 뜻이며, 영문으로는 기독교의 증거(Evidences of Christianity)로 번역하기도 한다.

본 논문에서 정위량의 모든 저서를 다루기 보다는 그의 주요 저작 중 기독교 변증서로 알려져 있는 『천도소원』을 중심으로 논문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아직 한국에서 정위량에 대한 연구는 아주 미흡한 실정이다. 그래서 정위량을 소개하는 차원에서 그의 글로 알려진 저서와 『천도소원』의 내용을 살펴볼 것이다.

II. 윌리엄 마틴의 글로 알려진 저술

1) 중문저작

1. 『*di-li shū lin van-koh kwu-kying z-t' yiu-tin kōng-tsing*(地理书林万国古今事休?? 讲?)』(Geography). 4권, 185장 1852년 Ningbo(Ningpo)에서 출판. 이 책은 Ningbo방언으로 출판되었으며 로마자 병음을 사용. 1859년 Ningbo에서 재판 52장에 대한 접개지도 첨부.

2. 『*di gyiu du. Ng da-tsiu di-du. qeng-koh, peng-sang, peng-fu, San-foh di-du, wa-yiu, sing-kying di-du, lin. di-li veng-teh. di-ming tsiao ying-wan-ts liah*』
地球圖, 五大洲地圖, 分國分省分府三幅地圖, 還有聖經地圖, 另地理問答, 地名, 照英文字例』
지리에 관한 문답 형태의 지리서, 10장의 대형 지도 첨부, Ningbo, 1853년 출판 Ningbo방언으로 기록하였으며 알파벳 병음을 사용

3. 『*Son-fah k' a-tong*(算法通)』(*Arithmetic*) 63장 1854년에 Ningbo에서 발행. Ningbo방언으로 쓰여졌으며 아라비아 숫자를 활용.

4. 『*天道溯原(Evidences of Christianity)*』. 3권 77장 1854년에 Ningbo에서 발행. 1권 6장 자연물 중의 증거에 관하여, 2권 7장 성경의 증거에 대하여, 3권 9장 기독교 교의와 실천상의 증거에

중요한 조항이 명시되었다. 바로 선교사들의 신변보호 및 포교 활동의 자유와 개신교를 억압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명시되었다.

6) 조너선 스펜스 지음, 『근대중국의 서양인 고문들』, 김우영 옮김 (서울: 이산, 2009), 172-173.

7) 윌리엄 마틴이 중국에서 선교를 하면서 대부분의 이름을 중국명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지금부터 중국명 ‘정위량(丁韪良)’으로 통일하여 사용하도록 하겠다.

관하여 서술하였다.

5. 『Sing-s(圣诗)』(*Psalms*). 72장 1857년 Ningbo에서 출판. 『大衛诗篇』의 선집이며, 그 중에서 1~34, 42, 46, 50, 51, 63, 65, 72, 84, 90, 91, 95, 96, 100, 103, 104, 110, 115~118, 121, 130, 139, 145면을 구성하여 Ningbo방언으로 번역 완성하였다.
6. 『喻道传(Religious Allegories)』 48장 1858년 Ningbo에서 출판. 이 책은 16편의 짧은 글로 구성, 1863년 Shanghai에서 중판.
7. 『三要录 (The three Principles)』 22장 1858년 Ningbo에서 출판. 기독교의 세 가지 원리인 삼제 인류와 예수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다. 1859년 Ningbo에서 중판되었으며 문장의 배열이 약간 조정하였다.
8. 『保羅垂訓(Paul's Discourse at Athens)』 9장 Ningbo에서 출판. 바울의 아테네 설교집. 1859년 Ningbo에서 28쪽으로 중판 1861년 제 3판이 Shanghai에서 출판.
9. 『公会政治』(*Form of church Government*), 24장으로 Ningbo에서 간행. 교회 조직론 또는 교회법이다. 1860년 다른 장로회 선교사에 의해 72장으로 증보 개정되었다.
10. 『foh-ing dao-li ling-kying veng-teh(福音道理灵进问答)』(*The Assembly's Shorter Catechism*). 22장 1859년 Ningbo에서 출판. Ningbo방언 번역본이며 로마자 병음을 사용한 단문 교리문답서.
11. 『구세요론(Important Discourse on salvation)』 4장 1860년 Ningbo에서 간행. 천도소원을 참조하였으며, 기독교 구원에 관한 중요한 것들을 열거. 1862년 5면으로 Shanghai에서 중판 1864년 Shanghai에서 다시 4면으로 증판
12. 『雙千字文(The Two Thousand character Classic)』 26장 18658년 Shanghai에서 출판. 2000자의 한자로 기독교 진리를 사언운문(四言韻文)한 책이다.
13. 『万国公法(International Law)』 4권 228쪽 1864년 Beijing에서 출간. 惠頓氏(Wheaton)의 국제법 저서를 중국어로 번역한 책이다. 일본인들도 일찍이 만국공법의 중요성을 알고 출간하였다.
14. 『官話約翰福音書 KWan Hwà yo han fūh yin shoo』 22면 1864년 Shanghai에서 출판. 관화본은 신약의 요한복음 신(新)주석본이다. 정위량과 艾約瑟(Edkins)과 함께 공동으로 번역한 신약성경의 일부이다.
15. 『性學舉隅』 320면 上下 1897년 Shanghai에서 출판. 철학과 종교의 문제를 문답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책이다.

2) 영문저작

1. 『認字新法 常字双千, The Analytical Reader. A Short Method for Learning to Read and Write Chinese』. 143쪽 1863년 Shanghai에서 출판. 한자 글자 해석 교본으로 한자의 읽고 쓰는 방법에 대한 해설.
2. 『常字双千釋千, A Vocabulary of Two Thousand frequent characters with their most common significations, and the sounds of the Peing Dialect』. 57쪽 1863년 Shanghai에서

출판. 북경어 발음과 뜻이 표기된 어휘집으로 부록의 형태로 제본되어 『인학신법』과 함께 출판되었다.

3. 『華甲憶記, A cycle of Cathay, or china, South and North with Personal Reminiscences』 50면 1909년 상해에서 출판. 정위량의 중국 선교 60년을 정리한 자신의 자서전.

3) 기독교저작

정위량은 12년 동안 절강성 Ningbo와 상해에서 16종의 저작을 출판하였다. 그는 19세기 중반 로마자를 이용하여 중국어 발음표기법을 만들었으며, 각종 서적(지리서, 산수책, 찬송가, 기독교 교리문답서)을 로마자 표기법을 이용하여 중국어를 표기한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 이다.⁸⁾ 정위량은 60년이 넘게 중국에 살면서 저술 및 출판한 그의 저작은 기독교, 어학, 법학, 과학, 철학, 교육 및 영문 저작을 포함하여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 중에서 김효전의 『근대 한국의 국가사상』에 수록된 기독교와 관련된 저술은 다음과 같다.

- (1) 『요한복음서』 1855, Ningbo방언, 로마자
- (2) 『천도소원(天道溯原)』 1854, 3책 77면, 기독교 교리서⁹⁾
- (3) 『시편(Sing-s)』 1857, 72면 시편, Ningbo방언, 로마자
- (4) 『삼요록(三要錄)』 1858, 22면, 기독교의 해설
- (5) 『보나수훈(保羅垂訓)』 1858, 9면 바울의 가르침
- (6) 『유도전(喻道傳)』 1858, 48면, 기독교 해설의 우화집
- (7) 『교의문답서(教義問答書)』 1859, 22면 Ningbo방언, 로마자
- (8) 『공회정치(公會政治)』 1860, 24면, 교회정치 형식의 토론
- (9) 『구세요론(救世要論)』 1860, 4면, 천도소원 서문
- (10) 『관화약한복음서(官話約翰福音書)』 1864, 22면, 요한복음서
- (11) 『성리약론(性理略論)』 1869, 19면, 기독교 교양의 해설
- (12) 『성학거우(性學舉偶)』 1898, 320면, 문답형식에 의한 철학적·종교적 문제 (이홍장(李鴻章) 서문)¹⁰⁾. 1897년 상해에서 처음 출판.
- (13) 『천도핵교(天道覈較)』 1909, 100면,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의 비교

8) 정위량은 한문을 더욱 쉽게 쓰기 위해 현대 중국어의 모체가 되는 병음(알파벳 표기)을 만들어 사용하였다.

9) 조선에 정위량의 『천도소원』이 유입된 정확한 경로는 찾아보기 힘들다. (1) 조선인 최초의 세례자인 이수정이 일본에서 순한글로 번역하였지만 출판을 하지 못하고 원고 형태로 아펜젤러와 스크랜톤 선교사에게 보내졌다는 주장이 있다. (2) 1891년 언더우드 선교사가 앨런우드에게 쓴 편지를 보면 대한성교서회에서 『천도소원』을 번역하고 인쇄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본국에 전하고, 언더우드가 한글로 『천도소원』을 번역하였다는 주장이 있다. (3) 장로교와 감리교 선교사들에 의해 설립된 한국성교서회에서 1894년 감신정변으로 한성감옥에 투옥된 개화와 인사들을 전도할 목적으로 옥중전도문고(The Prison Library, 1905년)를 만들어 전도활동을 하였다. 이후 이원궁, 이상재, 이승만, 유성준 등 10여 명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한다. 이때 한성감옥 안 ‘옥중전도문고’에 『천도소원』도 함께 있었다는 주장한다.

10) 이홍장(李鴻章, 1823-1901년) 중국 청나라 말기의 한족계 충신으로 청의 부국강병을 위한 양무운동을 주도했던 인물이다. 그는 그의 스승 중국변과 함께 태평천국운동을 진압하면서 조정에 등용되었다. 그는 청일전쟁에서 패배한 후 그를 따르는 세력들과 함께 몰락하였다. 임종옥 편지, 『중국역대 인명사전』 (서울: 이회, 2010), 1443. 참조.

- (14) 『화갑억기(花甲憶記)』 1909, 50면, 정위량의 회상록, 자신의 자서전(60년의 전도 기록)
- (15) 『고후론(高厚論)』 1911, 20면, 소론집
- (16) 『유도신편(喻道新編)』 1914, 56면 유도전의 증정본
- (17) 『성경약선(聖經略選)』 1914, 340면 『성경』 초역¹¹⁾

III. 『천도소원』의 저술배경과 출판

정위량은 Ningbo에서 『천도소원』(1854) 초판을 간행하였다. 자신의 자서전인 『화갑억기(花甲憶記)』에서 『천도소원』에 대하여 ‘기독교 교리를 변호하기 위해 책’을 출판¹²⁾하였다고 기록하였다. 정위량의 『천도소원』은 중국 선교에 있어서 기독교 교리를 변증할 목적으로 중국에 소개한 책으로 ‘자연신학적 방법론’과 ‘상식철학’에 바탕을 두고 쓴 책이다. 또한 마테오 리치의 『천주실의』에 비해 더욱 실증적인 측면에서 기독교 교리를 설명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그는 『화갑억기』에서 『천도소원』을 쓰면서 느낀 소감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다.

내가 머릿속의 제목을 정리하여 밤에 강도(講道)의 주제가 된 것은 나 자신의 관점을 표현했을 뿐만 아니라 청중들과 토론하는 것이다. 매일 아침 나는 전날밤에 토론한 것을 정리하여 성형(成型)하게 하였다. 나는 권위를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고, 교본의 한 페이지라도 번역하지 않았으며, 강도(講道) 과정에서 말했더라도, 극히 작은 부분이다. 내용과 형식은 모두 현장 강도에서 나온 것인데, 하나의 활서(活書)를 성취하였다. 중국인이 입맛에 맞고, 그 요구에도 맞는다.¹³⁾

정위량은 『천도소원』을 작성할 당시 기독교의 내용을 중국의 문화 주류인 사대부들과 이 문제를 고민하였다. 그렇게 완성된 『천도소원』은 하늘의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 살피는 뜻이다.

나의 저작 『천도소원』은 근원을 연구하는데 뜻이 있으며, 그 사리(事理)를 헤아리고, 그럼으로 전한 도리가 허사(虛辭)가 아니며 모두 근거가 있다.¹⁴⁾

11) 김효전, 「근대 한국의 국가사상 -국권회복과 민권수호-」 (서울: 철학과 현실사, 2000), 418-421 참조. 정위량은 중국어 저작을 크게 법학 관련 10종, 기독교 관련 17종, 어학 관련 5종, 기타(과학●철학●교육) 관련 16종 등의 네 가지로 구분하였다. 또한 김효전은 정위량의 영문저작 8종도 소개하고 있다. 필자는 김효전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일부 수정 보완하였다. 또한 吉田寅, 『キリスト教伝道文書の研究』 (東京: 汲古書院, 1993), 95-96 참조.

12) 丁慧良, 『花甲憶記』, 周振鶴 主編 (중국: 广西师范大学出版社), 2004, 41.

13) 丁慧良, 『花甲憶記』, 周振鶴 主編 (중국: 广西师范大学出版社), 2004, 41.

14) 『천도소원』 광서(光緒) 삼십삼년(1907) 정미년 여름 사월(四月) 정위량 서문에 보면 자신이 쓴 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천도소원』의 내용과 형식은 주로 중국의 지식인들과 소통을 통해 완성된 것이다. 이 책이 출판되자 중국에서는 베스트셀러가 될 정도로 인기가 있었다. 『천도소원』 1854년부터 1912년 까지 중국어, 일본어 및 한국어¹⁵⁾로 출판되었다.

『천도소원』의 첫 출판은 1854년에 Ningbo(Ningbo(영파)에서 출판되고, 책은 3권으로 나누며, 첫 권은 여섯 개의 장절로 되고, 중권은 일곱 개 장절로 되고, 하권은 9개 장절로 되었으며 모두 77페이지 이다. 두 편의 서언(序言)이 있으며, 그 중 하나는 사명기진자(四明企眞子) 즉 범용태(范蓉埭)가 만든 것이다.

1858년에 Ningbo에서 두 번째 판이 출판 되었는데, 서문 총 수는 여전히 두 편이고 범용태(范蓉埭)의 것은 보류하고, 따로 당부중(唐傳中)의 서문을 집어넣었다. 상권은 오행(五行)의 한 장을 추가했으며, 하권에서는 삼위일체 장절을 추가해 모두 91페이지로 만들었다.

1860년에 Ningbo에서 제 3판을 출판했는데, 총 118페이지 이다. 1869년에 상해 미화서관에서 금속 본으로 고쳤는데 모두 56페이지였다. 1887년에는 행세(行世)가 오래되어 중국과 일본에서 여러 번 번각(翻刻)되면서 잘못 된 것이 많아졌다. 그래서 정위량은 원본을 상세히 교정하여 지우거나 보태면서 1912년 복상하여 간정하였다. 전 책이 총 113페이지이다.

1912년에는 화북서회의 요청을 받아 이 책은 또 문언본도 출판 하였다. 『천도소원』을 문언본으로 만든 이유는 정부의 관원들이 하나씩 가지기 위해서였다. 문언판도 각 판본 사이에 서로 차별이 있었다. 예를 들면 1907년 수정판에는 유대인 비문을 넣었으며, 매 권마다 문제를 넣었다. 그 외에도 사람들에게 이목을 끈 것은 각 판본의 역명(譯名)에서 ‘신(神)’을 쓰거나 ‘진신(眞神)’, 또는 ‘천주(天主)’, 또는 ‘상제(上帝)’라고 쓴 것은 교회 내부에서의 역명에 대한 논쟁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¹⁶⁾

1864년부터 1865년간 포이등(包尔騰)이 『천도소원』을 관어로 번역하였는데, 이 관어본의 이름이 『천도소원직해』이다. 일본에서도 『천도소원』이 많이 출판되었는데¹⁷⁾ 일본의 국회 도서관 및 미국의 하버드 옌칭 연구소(Harvard-Yenching Institute, 중국명:哈佛燕京学社)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도 많은 번역본들이 보관되어 있다.¹⁸⁾

또한 『천도소원』은 중국에 처음 들어온 선교사들의 언어 교육용으로 많이 읽혔다. 1903년 11월 『천도소원』은 남경에서 거행된 미국 교회 중심회의에서 중국인 순유(巡遊) 목사가 주장하여 읽기 시험의 필수 과정으로 추천 되었으며 일부 교회에서는 주일학교 교재로 사용되기도 하였다.¹⁹⁾ 이는 중국 안에서 『천도소원』이 지식인들과 중국 신자들

15) 한국어로는 언더우드 선교사가 번역하였다는 이야기는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간행된 『신학원보』 (1907년 권4-5호)에 수록되어 있다.

16) 王文兵, 『丁韪良与中国』, (北京, 外国教学与研究出版社), 2008. 48.

17) 吉田寅, 『キリスト教伝道文書の研究』 (東京: 汲古書院, 1993), 117-119 참조.

18) 우리나라에는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천도소원』 판본은 明治14(1881)에 제작되어 중촌정직(中村正直) 訓點을 단 것이다.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에는 마이크로피치로 저장되어 있는 판본이 있는데 1872년 상해(上海)의 미화서관(美華書館)에서 출판된 것이 있으며, 1907년판, 1903년판, 1911판 중국성교서회에서 출판된 판본들과 1890년에 출판된 화북서회(華北書會)판도 소장하고 있다. 또한 고려대학교 중앙 도서관에는 『천도소원관화(天道溯原官話)』 본이 소장되어 있으면 1899년에 상해의 미화서관(美華書館)에서 출판된 것도 있다.

19) 王文兵, 『丁韪良与中国』, (北京, 外国教学与研究出版社), 2008. 48.

에게 엄청난 영향력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위량은 1858년부터 1860년까지 미국공사의 신분으로 천진, 북경 및 동문관의 총교섭(1865-1894)으로 일을 때 많은 관원들과 접촉하면서 『천도소원』을 선전하였다. 이 홍장(李鴻章), 문상(文祥) 및 송후(崇厚)등은 『천도소원』의 내용을 물어보기도 하였다. 또한 동문관(同文官)에서 공부하던 학생들이 과거 시험을 볼 때 『천도소원』을 선물로 주기도 하였다.

1907년 상해에서 열린 선교 백년 대회에서 『천도소원』이 기독교 교리를 설명하고 널리 읽히고 계속된 출판을 보면서 ‘중국 선교 출판물 중 제일 환영받는 단행본’으로 평가 되었다.²⁰⁾ 이는 『천도소원』을 저술한 정위량의 노력으로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중국에서 『천도소원』이 유행할 수 있었던 배경은 바로 많은 선교사들의 도움도 있었다.

IV. 『천도소원』의 전제 구성 및 변증 방법

1. 전체 구성

『천도소원』의 초판은 1854년 Ningbo에서 간행되었으나, 그 이후 1858년, 61년, 67년, 69년 상하이에서 잇달아 간행되었다. 『천도소원』의 보급 양상은 재판의 간행 횟수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천도소원』의 소개서라고 할 수 있는 『구세요론(1860년)』, 요약판에 해당하는 『천도소원택요』, 관화판인 『천도소원직해(1860년)』 등의 출판을 통해 알 수 있다. 또한 중국의 독서대상이 지식인층뿐만 아니라 일반 서민층까지 확대되어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천도소원』은 상, 중, 하 3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외에 서문을 포함하여 「서광계 진유천주교소(徐光啓奏留天主教疏)」와 「경교유행중국비문(景教流行中國碑文)」이 수록되어 있다.

『천도소원』의 상권 전체는 7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된 논의는 자연신학에 근거하여 우주, 자연계, 생물, 인간의 구조, 질서, 조화를 확실히 하고 창조주의 존재를 실증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중권 전체는 7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성경신학의 근거에 의해서 성경속 진리를 하나하나 논증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또한 기독교의 발전으로부터 신의 존재까지 설명하고 있다. 하권은 전체 10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 부분은 기독교의 조직신학적 교리와 성경을 토대로 영혼의 부활, 마지막 심판, 그리스도의 속죄, 기도, 세례, 성찬의 의미,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해설로 되어 있다. 『천도소원』의 목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 王文兵, 『丁韪良与中国』, (北京, 外国教学与研究出版社), 2008. 49.

[표 1]

상권	중권	하권
1장 성수(星宿 해, 달, 별)로써 증명함 2장 오행(五行)으로써 증명함 3장 생물(生物)로써 증명함 4장 사람의 몸으로써 증명함 5장 영혼(靈魂)으로써 증명함 6장 동물과 곤충으로 증명함 7장 모든 만물에 드러난 주재(主宰)의 덕(德)에 대한 논의	1장 하늘(上帝)의 가르침 바에 옳지 않는 것에 대한 논의 2장 예언으로 증명함 3장 신(神)의 행적으로 증명함 4장 도(道)의 행위로 증명함 5장 교화에 근거한 증명 6장 도(道)의 미묘함으로 증명함 7장 의심스러운 실마리를 풀이함으로써 참 도(道)를 밝힘	1장 성경원문 해석의 근거 2장 신(神)의 영원성, 생신의 회소(부활)와 말세의 심판에 대한 논의 3장 시조 라인(累人)의 어긋난 생명에 대한 논의 4장 예수의 속죄로 구원받은 사람에 대한 논의 5장 성령을 회복한 사람의 본성에 대한 논의 6장 세상 사람들이 믿음을 의지함으로서 얻은 구원에 대한 논의 7장 신자가 마땅히 힘써 닦아야할 성인의 덕에 대한 논의 8장 신자의 떳떳한 마음(恒心)의 기도에 대한 논의 9장 신자가 마땅히 조심하고 정성껏 지켜야 할 성례(聖禮) 10장 삼위일체를 설명함.

2. 변증 방법

『천도소원』의 변증 방법은 자연신학과 계시신학에 속하는 역사문헌 증거와 성경의 계시로 나누어진다. 상권은 “하나님은 유일하며 천지의 조화의 주재자로서 물질의 이치를 깊이 관찰하는데, 명확한 증거가 있다는 것을 설명한다.” 중권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로 내린 조서를 가지고 만국이 따르도록 명령하셨다. 이 조서를 통해 사람의 마음을 파악하는 근거로 보고 제시한다.” 하권에서는 “성경 곧 큰 단을 상세히 변론하고 정밀하게 관찰하여 스스로 깨닫도록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있음을 논하였다.”²¹⁾

정위량은 『천도소원』의 서문에서 기독교 신앙을 ‘천도(天道)’라고 강조하고 있다.²²⁾ 이는 중국인들의 사고에 들어있는 보편성과 중국신도들이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내용을 함축적으로 내포하고 있다. 정위량은 이 ‘천도(天道)’가 기독교의 보편적 진리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이며, 중국의 유교, 불교, 도교를 보아도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도(天道)의 보편적 진리 개념은 없다고 주장한다.²³⁾

21) 『天道溯原』의 서문에 보면 자신이 이 책을 쓰는 이유와 목적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 1907년의 서문을 보면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是書分作三卷. 上卷言 神惟一 即造化天地而主宰之 神, 深察物理, 確有可憑. 中卷言 神已降恩詔 令萬物導行. 核之卷籍 揆之人心 鑿鑿可據. 下卷言恩詔中大端 詳辨精察 自具明證. 謹將要目標著於上 俾閱者易記 層折易分. 不比行文眉批讚語 又便於學堂問答考課. 讀者玩索而有得焉 是則予所厚望也夫.

22) 『天道溯原』 「天道溯原引」 其所謂天, 非蒼蒼之天, 乃宇宙之大主宰也. 其性則聖而不可知, 所以稱之曰神.

또한 서문에서 기독교의 자연신학적 개념과 중국의 ‘도(道)’를 천(天)에 연결시켰다. 그는 기독교를 중국 종교의 보편적 개념을 적용한 최고 진리 곧 ‘천도(天道)’라는 개념을 부각시키면서 『천도소원』의 방향을 설정하였다. 그는 이 천도가 서양인에게서 나왔지만 그 도는 서양인이 만든 이론이 아니다. 하지만 도는 어디에서 왔는가? 그는 유가(儒家)의 도(道)의 큰 근원은 하늘에서 났다는 설명을 빌어, 도(道)와 천(天)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천도(天道)라고 주장한다. 그는 유가적 개념을 바꾸어 천(天)을 기독교의 신(神)으로 해석하여 이른바 진신(眞神) 또는 상제(上帝) 또는 아버지(父)로 해석하면서 천도(天道)가 기독교이고 기독교가 천도(天道)라고 주장하였다.²⁴⁾

정위량은 기독교가 곧 천도(天道)이니 자연적으로 믿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서문에서 특별히 서양인이 기독교를 신앙하는 것은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이성(理性)에 기초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그는 ‘연구한 이후에 믿는다는 것’(究而后信)을 강조하였는데, 이 책은 바로 “사람이 각자의 실증(實證)을 얻으려면 공통으로 그 도(道)를 믿어 의존하여 함께 구원을 받는 것이다”²⁵⁾라고 설명하였다. 그래서 서양인들은 다른 신을 믿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다만 동방 유대교에서 난 하나의 종교를 선택하였는데, 이는 이성적 사고를 한 이후에 선택한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것이 곧 바로 『천도소원』에서 이성으로 논증해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한다.

『천도소원』 상권은 모두 7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방에 건립한 근대과학(천문학, 화학, 생물학, 생리학, 심리학)에 기초하여 자연신학의 각도에서 보면 해, 달, 별, 오행, 생물, 인신, 영혼, 금수 곤충 등으로 하나님의 존재의 진실성을 논증한다. 이는 계시신학과 달리 상권에서는 자연에 대한 이해의 유사성 및 인간의 이성 및 지각능력의 신빙성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한다.

정위량은 우선 근대 천문학에서 출발하여 오행(五行)은 대지(大指)의 하나님이 사연(使然)하셨다고 보았다. 오행이 만물의 필수임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했다. 금(金), 풍(風), 수(水), 화(火), 토(土)²⁶⁾가 기적같이 상호 배합하여 만물을 조성하였는데, 전지전능(全知全能)의 주(主)가 뒤에서 경영하지 않음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²⁷⁾ 오행의 큰 종류 아래 자연계에는 60여 종의 성질이 부동한 원행이 있다. 이것도 하나님이 세계를 만들기 위해 해낸 안배(安排)라고 보았다.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정위량이 중국에서 유행하는 생물기원에 관한 자생지설(自生之說) 및 음양(陰痒) 이기(利己)의 변화에 대해 비판을 하면서 하나님이 조물의 구체적인 조성과정은 조화를 이루시고, 인간을 마지막에 만드셨다. 인체의 정교한 설계도 정위량은 하나님이 만

23) 『天道溯原』 「天道溯原引」 夫人事之首務，主於敬神。而耶穌教之言神也，與世俗異。

24) 『天道溯原』 「天道溯原引」 今是西出自西人，而其道則得於東方之猶太，溯而上之，道之大，原出於天，斯言最爲確論。

25) 『天道溯原』 「天道溯原引」 夫救與不救，專視夫信與不信，則其道之爲眞爲僞，安得不深究哉？是書之作，欲人各得其實證，而共信其道，與我儕同得救耳。

26) 정위량은 중국고대에서 내려오는 오행의 전통인 금(金), 목(木) 수(水), 화(火), 토(土)에 목(木)을 빼고 풍(風)을 집어넣었다.

27) 『天道溯原』 上卷 「以五行爲證」 非全知全能之神經營之，其能至於此哉？ 여기서 마틴은 전지전능(全知全能)한 신(神)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든 진정한 주인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드신 증거로 보았다. 그가 말하기를 “생(生), 조(造)는 구별이 있다.”²⁸⁾ 낳은 자는 부모지만, 만든 자는 부모가 아니라는 말이다. 인체는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으며, 손발, 경락(經絡), 구복(口腹), 이목(耳目), 비설(鼻舌) 등 관능상의 묘용과 상호 의뢰는 하나님의 소유뿐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사람은 영혼(心靈本性)이 있으며, 사람의 영혼은 영재(靈才), [지각능력, 각(覺), 오(悟), 기(記), 사(思), 상(象)]의 오종과 심재(心才) [욕(欲), 정(情), 호악(好惡), 시비(是非)]인 사종(四從)으로 나눌 수 있다. 사람의 다섯 가지 영재(靈才) 중 순서는 서로 의존하여 사용하는데, 하나도 없어서는 안 된다. 또한 네 가지 심재(心才)를 빌어 덕(德)을 닦는다. 정위량이 여기에서 영혼의 묘용(妙用)은 신체를 능가 했으며, 하늘이 성(性)을 사람에게 부여하여 이치에 밝아 선하게 한다고 보았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였다는 증거라고 보았다.²⁹⁾

금수(禽獸)와 곤충(昆蟲)의 기원 및 본능도 정위량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데 쓰였다. 동물들은 낳고, 키워 그 종류를 연장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양지양능(良知良能)으로 보았다.³⁰⁾ 이는 천성(天性)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으며, 하늘 곧 하나님께서 부여하는 것이다.³¹⁾ 사람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며, 사람은 물질을 다스릴 수 있으며, 사람은 하늘의 주인에게 다스림을 받는다. 만물의 일은 사람이 한 것이고 사람의 일은 하늘이 한 것이다. 하늘과 사람 및 물질이 처한 등급이 달라 각자의 위치가 있고, 각자의 책임을 지며 이는 잘 어울린다. 이것도 하나님의 안배이다. 위로는 천상을 보고, 아래로는 지리를 구하며, 가까이로는 사람을 보고, 멀리로는 물질의 본성을 관찰하는데, 모두 주(主)의 묘용(妙用)을 알 수 있으며, 주(主)의 묘용(妙用)을 믿지 않을 경우 어찌 얻을 수 있겠는가?³²⁾라고 하였다.

『천도소원』의 중권은 7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독교의 성경 신학을 소개하고 있다. 그 중 제 1장에서는 ‘상천(上天)’이 가르침을 내린 것은 인간이 필요로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사람이 성경의 계시가 필요했다고 해석한다. 정위량은 제 7장에서 의심스러운 부분을 해석하여 진짜 도를 밝혔다. 기독교 신념을 받아들이는데 각종 우려를 풀어내었다. 중간의 각 장은 『성경』의 5가지 증거로 증명하였는데, ‘예언으로 증명’하고 ‘신(神)의 흔적으로 증명’하고, ‘교의(教義)로 증명’하고, ‘교화로 증명’하고 ‘도의 신묘함’으로 증명하였다.

이 중권의 내용은 기독교 즉 성경의 교의의 증거로 기독교의 합리성을 증명하였다. 정

28) 『天道溯原』 「天道溯原引」 當太初之世, 天父欲降生蒸民, 先創世界以安其身, 生禽獸以服其役, 備穀果以供其食. 萬物既成, 遂造一男一如, 以爲萬世之父母. 以塵土造身, 以神靈賦魂, 且授以正道, 命之世守勿替. 上卷 「以人身爲證」 古曰 生我者父母. 人之形 與 神則不同 古曰 造人者 神也.

29) 『天道溯原』 上卷 「而靈魂爲證」 百體雖具 非靈魂萬於其中 皆不能自動. 考察百體, 既得悟造物之智能. 究之靈魂, 益當知其妙諦. 夫身軀止一, 百體攸分 靈魂惟一, 諸才可論. 才分兩端, 一曰靈才, 一曰心才. 蓋致知者爲靈才, 總其大端則有五, 覺, 悟, 記, 思, 象是也. …… 心才有四 人所藉以修德 即欲, 情, 好惡, 是非是也.

30) 『天道溯原』 上卷 「以禽獸魚蟲爲證」, 嘗取鳥卵, 烘之出雛, 錮之空室, 日久亦能作巢育卵, 則天性而非世傳矣. 或以爲思而得之, 豈知卵堅無隙, 目無從窺, 何能探測其理, 而謂有雛之可出哉? 凡此者, 皆良知良能. 造物所賦以爲養生植類之用耳.

31) 정위량은 세계에 있는 동물들의 본성을 천성(天性)으로 해석하였다. 이는 중국의 자연신학적 방법론을 이헤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32) 『天道溯原』 上卷 「以人身爲證」 人之百體 固有妙用 …… 夫一物也, 而衆美集於中 羣材顯於外 豈偶然哉?

위량은 우선 상천(上天)이 가르침을 내리는 것은 사람이 필요함을 강조하여 자연신학이 성경의 계시를 방해하지 않음을 강조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교리를 내림은 성경을 통해서이며 예수가 자기의 몸으로 사람을 대신하여 죄를 사함을 정확히 예언하기 위해 진행한 것이다. 이외에도 그는 예수의 신적권위 뿐만 아니라 특히 19세기의 신학자들과 같이 예수의 역사성을 중시하였으며 그것을 기독교를 믿을 수 있는 증거로 삼았다.

정위량은 중국의 유교, 도교, 불교의 삼교의 진리는 복음의 진리보다 못하며, 기독교의 신앙은 이미 200여 국가가 받아드리고 있는 것으로 주장한다. 이것은 상천이 돌보시는 것을 확실히 공언하는 것이다. 그는 특별히 기독교 국가의 강성을 기독교를 신봉하는데 연결시켰다.³³⁾ 비 기독교국가가 쇠퇴하거나 미약하다(衰微不振)고 하였다. 서양의 일부 국가는 역사상 기타 많은 종교를 신봉하였지만 지금은 기독교를 믿고 있다. 그는 중국이 장래에 불교와 도교를 물리치고 기독교를 믿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고 주장하였다.³⁴⁾

정위량은 실증적인 교화를 통해 기독교가 진리임을 증명하는데 힘을 썼다. 그는 기독교 신앙과 서양문명을 서로 동일시하고 서양문명을 이용하여 기독교를 증명하였다.³⁵⁾ 그는 격치(格致), 신도(神道)를 따르는 나라, 운선(輪船), 기차, 전선, 무선 및 전음, 촬영 등의 기술은 모두 기독교를 신봉하는 나라에서 나왔다. 기독교를 신봉하면 이익을 얻으며 남양 군도의 섬들과 인도 및 일본은 모두 기독교 교화의 이익을 얻었다고 말한다. 기독교가 빠르게 세계화 된 것은 그 도가 진리이며 완전하여 천하가 자기 스스로 변한 것이라고 한다.³⁶⁾

정위량은 세계화의 각도에서 출발하여 그는 차별이 있게 회교(回教), 도교(道敎), 불교(佛敎) 삼교(三敎)를 비판하였다.³⁷⁾ 그는 유교에서 말하는 사람은 신을 닮지 않았으며, 도는 완전하지 않으며 신인의 윤리는 결핍되어 그 교의는 바르나 아름답지 못하여 결국

33) 『天道溯原』 中卷 「況崇耶穌之國，最為強盛。亞非利加則屬乎英、法、德、義、日、葡諸國。亞細亞則南屬英、法、北屬俄。西半球之美國，開國之時，地不廣大，濱於西洋，今則開疆闢宇，漸至東洋，四十九邦合為一國。其北界英屬甲那達，地廣而民亦益衆。茲數國者，舟楫皆無遠弗屆，尤便於宣傳聖教。而未從耶穌之國，多致衰微不振，商船渡海最少。天之輔佑真道，不顯然哉？」

34) 『天道溯原』 中卷 「昔西方信無數鬼神，為民所尊崇者，今皆廢置而不奉，中華之佛、老、菩薩、鬼神，將來亦然。後世僅存其名，以備稽考。譬如霜雪，見睨而消，理之所必然也。」

35) 『天道溯原』 中卷 「初，羅馬之滅猶太也，國可滅而教不能滅，羅馬之民轉服於聖教。迨羅馬旋滅於夷狄，迨更振興，狄人習之，致北方諸國喁喁焉信從而向化。由是徧傳歐羅巴諸邦。適得指南針於中國，哥倫坡持之航西洋，覓得亞美利加南北兩大洲，而教又傳於西半球之地。今大美鄰近諸國皆信從耶穌。同時有法斯科者，往南洋，覓得至印度與中華之水程，教益廣傳。後荷蘭人又覓得南洋之大島，名奧大利亞，地極廣闊，現屬於英，近時教化日盛，將來必成大國。邇來中國與日本皆弛舊禁，聽奉新教，此非上天引導行教之路，徧及萬方之證乎？」

36) 『天道溯原』 中卷 「後荷蘭人又覓得南洋之大島，名奧大利亞，地極廣闊，現屬於英，近時教化日盛，將來必成大國。邇來中國與日本皆弛舊禁，聽奉新教，此非上天引導行教之路，徧及萬方之證乎？」

37) 『天道溯原』 中卷 或問：「釋、道、回諸教，亦各能廣傳，何歟？」…… 道教以長生為重，其鑄鼎煉丹，得道為仙者，自古罕覩。且他無有道教之名，既未有證果，又局於一方，安得云廣傳？「若釋教，口不茹葷，心常念佛，以為久之可脫輪迴。其教來自印度，漢明帝時延入中華，雖歷代崇尚，而為徒者，入其門未守其戒，誦其經未諳其義，是有其名而無其實也，又何苦吾教之廣傳乎？」至西域回回，其教大端，如崇真主、祛偶像、遵割禮、禁豬肉之類，皆出自猶太古教，唐時起自亞喇伯，仗劍宣傳，初行最捷，自宋至今，漸為衰微，不過子孫授受而已，奉者無實學、無善政，皆歸歐洲保護，亦不足云教之廣傳也。」

완전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유교의 도를 어긴 자들을 회복시키지 못하고 공격하였으며 불교와 도교는 진실하지 않고 완전하지도 않아 그 우상숭배 및 천당지옥설을 통해 세계를 미혹시켜 세계를 화목하게 만들지 못한다고 보았다.

정위량은 세상 종교 중 『성경』보다 미묘한 것은 없으며, 기독교의 도(道)가 신묘함은 인간의 생사, 영혼 및 원죄 등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 ‘예수’만이 답을 줄 수 있다고 주장³⁸⁾하였다. 또한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다른 종교와 비교할 수 없으며 다른 종교들은 편협한 시각에서 천지귀신(天地鬼神)을 믿는데 오직 『성경』만이 진리라고 주장하였다. 『성경』은 아름답고 아름다우며 그 법은 엄청 쉽고, 그의 언어는 오로지 진실하며, 그 도(道)는 오로지 하나라고 주장한다.³⁹⁾ 정위량은 기독교만이 도덕에 합리적이며 정직한 종교이자 사람을 덕으로 이끌 수 있으며, 기독교 교의의 보편 문제에 의문을 가진 사람들에게 7가지 문제를 회답하였다. 이런 문제는 그가 진리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그 중 7번째 문제인 ‘이 진리를 믿는다고? 그렇다면 공자를 배신하는 것이 아닌가?’ 기독교와 유교의 관계에 대하여 중국인들이 기독교를 믿었을 때 실제로 부딪치는 문제가 바로 이것이다. 제일 중요한 것을 조화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정위량의 답은 “기독교는 유교의 부족을 보태주는 것이므로 유교의 효제(孝悌), 인륜(人倫)등을 기독교가 모두 포함하고 있어, 유교와 예수는 그 도가 같고 틀림을 가리지 않는다고 말하여, 기독교를 신봉하는 것은 유교를 위배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⁴⁰⁾ 하지만 그는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의 지위가 공자를 초월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가 신인(神人)의 두 가지 본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는 특별히 유명한 천주교 신자인 서광계의 말을 인용하였다. “진도(眞道, 기독교)는 진유(眞儒)를 상(傷)하지 않는다”⁴¹⁾는 입장을 인용하여 논증하였다. 이는 서광계가 당시 예수회를 변호하는 입장으로 말한 것을 기독교를 변호하는 입장으로 바꾼 것이다. 정위량은 일찍 영파(寧波)의 일부 지식인 신자들을 통해 서광계와 마테오 리치(중국명: 利瑪竇)가 전한 서적들을 접촉하였을 것이다. 그는 서광계의 관점을 빌어 기독교에 대해 변호와 동시에 보유훈적 견해를 견지하며 중국인들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갔다.

하권은 전체 10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권의 변증 방법은 바로 천지(天地), 인간과 물질은 모두 천상에 조물주가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 권의 핵심 논의는 도(道)의 대단(大端)을 설명한다.

정위량은 『성경』의 기본 교의를 토론하였으며 주요 장절은 성경 원문 역문으로 설명하였다. 그는 영생, 부활, 심판을 논증하였으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인이 된 것을 논증하였다. 이후 예수께서 사죄하여 사람을 구원한 것을 논증하였으

38) 『天道溯原』 中卷 或曰：「始祖犯罪，救主何不當時降生，何必待五千餘年始出世乎？」曰：「天父雖定意欲救世人，而故遲之又久者，欲人知自作孽不可逭之意。故任其用己之知，如盲人迷於行路，欲從末由，雖諸國各有聖賢立教，迨耶穌振興真道，久而彌顯，人始知天道之不著矣。且降生之遲早，於贖罪之功無損。耶穌雖未降，而天父既預定必行其事，苟有信從真道者，亦可得救。正如招人作工，既知其工必成，無妨預支工值也。」

39) 『天道溯原』 中卷 「以道之妙爲證」 要之，他教由於人心臆度，未免有過與不及，聖經降自 神，道出於天，無過不及之患。

40) 王文兵, 丁韋良与中国, (北京, 外国教学与研究出版社), 2008. 54.

41) 王文兵, 丁韋良与中国, (北京, 外国教学与研究出版社), 2008. 55.

며, 성령이 사람의 본성을 감화하심을 논증하였다. 세상 사람들은 믿음을 빌어 구원을 받음도 논증하였으며 신봉하는 사람들은 응당 힘껏 성덕(聖德)을 닦을 것을 논증하였다.

또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변치 않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함도 논증하였다.⁴²⁾ 이 권의 내용은 가능한 문답 형태로 되어있으며, 순수하게 기독교 교의에 속하며 자세히 서술하지 않았다. 그는 기독교와 유교(儒敎)의 관계에서 성례(聖禮)를 지키는 것을 말하였다. 그 이유는 중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사(祭祀)와 기독교의 성례(聖禮)가 부합되지 않는 상황에서 『성경』을 따르고 제사를 버릴 것을 강조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보면 정위량은 조상에게 제사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모든 일은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것으로 조상에 대해서는 그리워하고 존경하면 될 것으로 보았다. 그래서 『천도소원』 3권에서는 진리에 대한 논증을 하면서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고, 귀신, 천지에 제사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설명한다.⁴³⁾ 그래서 모든 예(禮)는 반드시 ‘성경 교리’에 부합해야 한다고 보았다.

하권(下卷) 초판본 마지막장에 없었던 ‘삼위일체’에 대한 내용을 1858년판에 추가하였다. 정위량이 하권 마지막 부분에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아마도 누군가 “신은 단지 하나인 ‘일신’이 아닌가? 어떻게 성부, 성자, 성령을 설명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았다. 여기서 정위량은 이는 길 한가운데 숨겨둔 깊은 뜻이 있으며, 보통 사람들은 탐구를 통해 알 수 없고 강습을 통해 알 수 있다.”⁴⁴⁾면 삼위일체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

특히 정위량은 우리 인간이 기도와 찬송의 유일한 대상이 삼위 하나님이라고 설명하며 이 삼위 하나님의 특성을 ‘삼신(三神)이 아니라 하나에서 삼(三)이고 삼(三)에서 하나이다’라고 말하며 삼위 하나님의 중요한 역할에 대해서 설명한다.⁴⁵⁾ 특별히 사람이 구하면 삼위 하나님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사람이 구하는 것은 이것은 은혜를 내려 아버지에서 나온다. 속죄한 것은 성자의 역사를 통해서 이다. 감화의 능력이 성령에서 나온다. 아버지가 직접 나타나지 않고 예수의 내림으로써 나타났다. 예수님이 모든 사역을 마치고 하늘로 돌아간다. 성령은 사람을 구하는 사역을 이루기 위해 늘 항상 세상에 있다. 삼위자가 그의 영광과 권위는 다르지 않고 높거나 작거나 그렇지 않다.⁴⁶⁾

42) 『天道溯原』 下卷 「若祈禱之禮儀，不拘坐臥立跪，務必誠敬其心，肅恭其貌，不須別服禮衣、焚化香燭，亦無庸供奉禮物。」

43) 『天道溯原』 下卷 「且聖經所言，揆之於理，無不悉合，非他教比也。今世上之教，或以天地為神，因而祭之。或信無數鬼神，因而祭之。不知天地為五行所成，非有神寓於其中，絕無知覺之靈。鬼神乃天使、魔鬼之屬，非由神秉授，亦無禍福之權，何用祭之？聖經則言造物主至尊惟一，既神且靈，而獻祭有專屬矣」

44) 『天道溯原』 下卷 今夫耶穌之道，其固有而至顯者，非即所謂神止一無二乎？然既曰神止一無二矣，又何以有聖父、聖子、聖靈之稱神哉？曰：「此誠道中秘奧之意，固非凡人可推索而得、能講習而明者也。」

45) 『天道溯原』 下卷 以是知祈禱頌讚者，固非三神，乃一而三、三而一也。要之，其造化天地，統攝萬有，稱為聖父；其出世代人贖罪而顯道，稱為聖子；其在心內，生德而默囑之，稱為聖靈，而無不為神。

46) 『天道溯原』 下卷 至救人之事，則開恩之意，本於天父；贖罪之功，歸於聖子；感化之能，出於聖靈。天父未嘗出世以使人共見，耶穌則降世以顯明之。救人事畢，復歸於天。聖靈則恆居世上，以成救人之意。此三位者，其尊榮權威，無或異也；大小高下，無或殊也。

정위량은 이 땅에서 유일하게 찬송과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삼위 하나님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는 사람이 명확하게 찬송의 대상이 누구 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 설명하였다.⁴⁷⁾ 끝으로 사람들 안에서 진리를 깨닫고 알게 하는 분이 성령이라고 설명한다.⁴⁸⁾ 그는 하나님의 도는 무궁하며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 큰 은혜라고 설명하고, 성경에서 전하는 도를 믿고 깨닫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성령의 감화라고 설명하였다.

V. 나가는 말

정위량은 중국에서 60년간 선교사로 활동하면서 주로 영파(寧波)에서 언어훈련과 다양한 분야에서 저술활동을 남긴 인물이다. 그가 쓴 책은 모두 16종으로 중국어 발음표기법부터 각종 서적뿐만 아니라 로마자 표기법을 만들어 중국어를 표기한 최초의 선교사이기도 하다. 그의 저서 중에서 동아시아 사회에 영향력을 준 책은 『천도소원』이었다.

『천도소원』은 1854년 Ningbo에서 처음 간행되어 1910년까지 수 많은 판본을 찍어낸 책이었다. 『천도소원』은 정위량의 중국선교에 대한 열망이 담겨 있는 책이다. 그는 청나라의 유력 인사들과 교류하면서 기독교를 잘 설명할 수 있는 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이 미국에서 배운 ‘자연과학’과 신학에 기초하여 『천도소원』을 저술하였다.

특히 정위량은 고위 관료들이 보고 읽기 편하게 『천도소원직해』라는 이름으로 출간되었으며, 『천도소원』의 소개서라고 할 수 있는 『구세요론(1860년)』, 요약판에 해당하는 『천도소원택요』도 출판되었다. 또한 정위량은 『천도소원』을 저술하면서 「서광계진유천주교소(徐光啓秦留天主教疏)」와 「경교유행중국비문(景教流行中國碑文)」과 같은 중국의 기독교 역사를 소개하는 방식도 선택하여 기독교가 중국인들에게 아주 친숙한 종교라는 것을 소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47) 『天道溯原』 下卷 或分讚三位, 讚聖父恩威並濟, 操萬世禍福之權衡; 讚聖子慈悲罔極, 為兩間協和之中保; 讚聖靈感應至捷, 默牖人心之覺悟。

48) 『天道溯原』 下卷 我固不能全知之, 惟誠信聖經所傳之道, 遵天父之命, 賴救主之功, 受聖靈之感, 迨得救之後, 則我日在光明城中, 復何歉哉?